

보도시점

배 포 시

배포

2026. 9. 30.(수) 09:30

거시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한 재정·통화·금융정책 당국 간 협력 강화

- 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
- 초과세수의 전략적 활용과 재정·통화·금융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필요성에 공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9.30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거시경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 등 거시경제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대내적으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극화 심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참석자들은 금일 발표된 금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하여,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회복이 가속화되며 지난 추경 예산 대비 63.2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우리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과 대내 요인이 맞물려 국내채권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에 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 <총괄>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시훈 (044-215-2830)
		담당자	사무관 이병준 (junnylee94@korea.kr)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기획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정민형 (044-214-1850)
		담당자	사무관 이흥석 (aforing@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사무관 최승희 (seungh2c@korea.kr)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책임자	팀 장 안세현 (02-759-4461)
		담당자	과 장 이병록 (lbr1225@bok.or.kr)